

사회

앗! 이런... 스마트폰 낭패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확산하면서 금융거래(폰뱅킹) 실수에 따른 금전 손실은 물론 운전중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의 특성상 가벼운 접촉이나 터치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에게 전화가 걸려, 실례를 범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10대나 20대의 경우 수시로 문자 확인은 물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송수신 등으로 손목이나 목이 빠르고, 눈이 충혈되는 등 '스마트폰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회사원 A(35)씨는 지난달 25일 뮤지컬 티켓을 구입한 뒤, 폰뱅킹을 통해 뜻밖 22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작은 거래에서 계좌번호를 누

폰뱅킹 실수로 금전손실에 재판까지 영동한곳 전화 걸리고 교통사고 유발 '종료' 터치 안해 대화내용 증례 되기도

르다가 잘못해 다른 번호로 송금되고 말았다. 거래 은행을 통해 자금 반환을 요청한 상태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폰뱅킹은 결제는 잘못됐더라도 양 자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수신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해야 한다. 영업사원 B(45)씨는 최근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한쪽 손을 이용해 스크린을 밀어 '잠금 해제'를 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 특히 간단한 폴더를 올리거나 열

마트폰 때문에 고스란히 사생활이 노출됐다.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스마트폰을 통해 또 다른 친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이 풀리는 바람에 최근 통화 목록에 있던 친구에게 전화가 걸린 게 화근이었다. 며칠 전에는 새벽 1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 잠과 안이 들어있던 스마트폰의 잠금이 해제되면서 본의 아니게 3차레나 지인에 전화를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김성식(20·대학생)씨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나도)쓰기는 하지만 문자확인하러 트루터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호변경을 눈여겨보지 않아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 한 달전 스마트폰을 구매해 사용 중인 대학생 C(21)씨는 얼마 전 스



보험설계사 공기총 맞아 중태

지난 30일 새벽 0시10분경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보험설계사 김모(28)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 탐문 결과 인근 주민들은 "김씨가 발견되기 5분 전에 공기총 소리를 추측되는 '탕'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필기자 k0765@

합침에 절도 신고했다 성매매 들름 ○--돈을 훔쳐간 성매매 여성을 절도로 신고하려다 성매매 혐의가 들뜬단 종편 남성이 경찰사형. ○--1일 광주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지난해 5월1일 밤 10시경 광주시 동구 계림동 자신이 살고 있는 모텔 객실에서 3만원을 지불하고 이모(여·60)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데. ○--경찰조사 결과 성매매 후 이들은 1년여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달 18일 이씨가 김씨의 동 30년원을 몰래 가져가자 훗김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절도만 신고하면 성매매는 모를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최저임금 현실화 하라” 민주노총회원 500여명이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도빌딩앞에서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외할머니 집서 강도 아내 징역형·망본 남편 무죄

외할머니 집에서 강도행가를 벌인 30대 여성과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응배)는 1일 외할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최모(여·3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81세인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

‘검진 비리’ 건보공단

(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과모(46)씨 등 2명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주거나 건강검진 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출장 건강검진소장 정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소장 1명과 임모(41)씨 등 병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어동, 비어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등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을 있음, 매매가 13억

▶ 준주거지역 (병원, 시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산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품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성매매업소 알고 임대 건물주도 처벌 받는다

목포경찰, 장소 제공혐의 안마사술소 업주 등 조사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줬다면 건물주도 형사처벌 될까? 건물주 A씨는 지난해 9월 초 목포시 상동 자신의 6층짜리 건물 5층·6층을 안마사술소 업주 K(36)씨에게 임대해줬다. K씨는 최근까지 이곳에서 여종업원 L(36)씨 등 9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했다. K씨는 성매매를 알선해준 대가로 남성 한 명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K씨는 4·5층 출입구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뒤 바깥에 대기 중인 종업원과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K씨는 또 안마사술소 안에 별도의 침실 6개를 마련해 놓고 이곳에서 성

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라가 걸린 잡히는 법. K씨는 혐의를 입수한 목포경찰에 의해 불잡혔다. 경찰은 1일 업주 K씨와 여종업원 L씨 등 9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2일 건물주 A씨를 불러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줬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성매매업소인 줄 모르고 임대를 했다면(1차에 한해) 경고 사인이지만, 관련 사실을 알고 건물을 임대해줬다면 법적 처벌을 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장소로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포함돼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성범죄 막아야 할 사람들이...

여자 화장실서 몰카 30대 교사 파면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구속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A(30)씨를 파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순천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여성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는 등 40여차례 몰카를 찍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는 서울 지하

철에서 계단을 오르는데 여성 뒷모습을 찍다가 불합여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또 감사인 기관감사에 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난 신안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4명을 견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기능직 직원도 경징계를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중생 성추행 '배움터 지킴이'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일 자신이 일하는 중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폭력이나 갈취, 파벌형 등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김씨가 상담

을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40분경 광주시 광산구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1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강제로 불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구분	대표이사 010-7570-7525	수익실시/상가	김태호주최이사 011-684-3886	공명/토지	김찬승이사 010-8033-0114
소재지	대구2동	경북	충청	충청	충청
소재지	대구2동	경북	충청	충청	충청
소재지	대구2동	경북	충청	충청	충청

아파트/빌라 명태진팀장 010-2634-3752 주택/재개발 양촌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정이사 010-5879-0005

병원, 교회, 사육, 모텔,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7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